

봄

벚꽃만
히코네성과 벚꽃의 조화는 절묘라고 할 수 있다



히코네성 • 사계 계절마다의 매력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당기는 역사와 로망의 고성

히코네성은, JR히코네역의 서쪽에 위치하는 초록색의 작고 낮은 언덕에 백악의 천수각이 자리하고, 이중의 해자로 둘러싸인 성곽이 거의 옛날 그대로 남아있어, 히메지성등과 같이 천하의 명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달빛에 비치는 성은 아름답고, 비와호수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만공이 성은, 초대 지방 영주 이이나마사의 적자 • 나오희구와 나오타카에 의해 약 20년의 세월을 걸쳐 축성 되어 겐나 8년 (1622년)에 완성. 이래, 히코네번 이이가 30만석의 영지를 가지는 성으로서 오늘날은 히코네의 상징으로서 고상한 용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히코네성은 한번 방문하면, 또다시 오고 싶어지는 그런 이상한 매력이 있습니다. 역사와 로망이 넘치는 고성 • 히코네성은 당신을 멀리 에도시대로 초대합니다.



여름

심록유유
선명한 초록빛에 둘러싸여
그 아름다움 속에 강한힘이...



가을

단풍유산
가을색에 물드는 성도
각별한 정취가 있어, 마음돌곳 있다

겨울

박설능름
하얀 눈으로 덮힌 성에, 정적의 세계가 펼쳐진다



클로즈 업「이이나오스케」

꽃의생애-이이나오스케는“개국의 아버지”히코네에서의 청춘시대를 더듬는 히코네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상의 인물이라고 하면, 뽀니뽀니해도 이이나오스케. 에도 말기, 일본을 개국으로 이끈 대노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히코네에서의 청춘의 날들은 한층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나오스케의 우모레기노야시대

나오스케는 문화 12년(1815년) 10월 29일, 11대 (14대) 지방 영주 나이나카의 14남으로서 규저택 (현재의 현궁낙낙원)에서 태어났다. 타가의 대를 잇거나 가신에게 입양되는 기회를 타고 나지 않았던 나오스케는,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규저택을 나와, 나카보리에 접한 오스에쵸의 저택으로 옮겼다.



성 내부의 해자에 접한 공키아동공원에 세워진 「이이나오스케 동상」. 가까운 곳에는「꽃의 생애 기념비」도 있다.

그는「세상을 등지고 매복에 파묻혀 큰 소리로 외쳐봐도 마음 들곳 없는 몸은」이라고 하는 단가를 읊어, 스스로 이 저택을「우모레기노야」라고 이름붙였다. 일생을 우모레기노야에서 헛되이 죽는 것을 각오한 나오스케였지만, 실의속에서도 선 • 국학과 단가 • 능과 맹언 • 거합 • 다도 등「이루어야 할 업」에 전력을 기울였다.

32세 때, 형 나오토의 병사에 의해 뜻하지 않게 세자가 되어, 35세에 지방 영주로 취임했다. 그리고, 대노로서 일 • 미 수호 통상조약에 조인. 그러나, 2년 후의 만연원년(1860년) 3월 3일, 에도성사쿠라다문외에 있어 양이파에 숨겨달해 46세의 생애를 마쳤다.



당시의 모습을 전하는 우모레기노야. 저택내에는 다실 (주요켄)도 남아 있다.



사쿠라다문가이의변의 2개월전에 그려진「이이나오스케 화상」. 단가를 자찬 해 청량사에 봉납했다.

발행 히코네시 교육위원회 문화재과
(우)522-0001 히코네시 오스에쵸1-38
TEL0749-26-5833 FAX0749-26-5899
제작/(주)영창당인쇄

국보 히코네성



세계 문화유산 잠정 리스트 등재

국보 · 천수각의 기품과 위용

독특한 미와 디자인을 자랑하는 성곽 건축의 최고봉



몇 가지의 파풍을 교묘하게 편성하여 아름다운 곡선의 조화를 보이는 천수각. 든직한 우영쌓기(고보즈미)로 불리는 돌담위에, 삼중의 천수각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교고쿠다카쓰구가 쌓아 올린 오즈성으로부터 이축되었다고 해, 게이쵸

12년(1607년) 경에 완성했습니다. 당시는 18 만석의 시대로, 규모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만(높이 21 m), 외관의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고, 성 본래의 기능에도 우수합니다. 쇼와 27년(1952년)에 국보로 지정. 현존 하는 국보의 천수각은, 히코네성 이외에는 히메지성 · 마츠모토성 · 이누야마성 뿐입니다.

내부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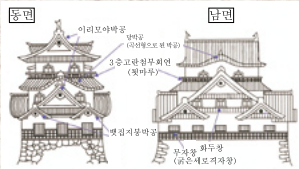
총보관장소

적의 습격시에 총으로 방어전을 하기 위한 좁은 장소. 밖에서는 안보이게, 회반죽(석회를 칠한 등과 함께 반죽한 것)이 벽에 칠해져 있다. 긴급시에는, 벽을 부서 사용하게 된다. 같은 양도의「화살보관장소」도 있다. 천수각내에는 75군데의 총, 화살 보관장소가 있다고 본다.

은폐 방

2층동쪽 · 서쪽, 3층남쪽 · 북쪽의 합계 4군데가 있다. 안은 각각 4~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가 있다. 다양한 파풍을 만든 결과이며, 은폐 방의 의도가 있는지는 미처 밝혀지지 않았다.

외관의 특징



변화가 풍부한 박공

등그름함을 지닌 양박공(곡선형으로 된 박공)이나 물테세(치도리)박공, 멧집(기리즈마)박공을 구사한 변화 있는 지붕. 다른 천수각에는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화두창

본래, 사원 건축에 사용된 곡선이 아름다운 창.

고관침부의 회연(잇마루)

이 잇마루는, 이중 삼중의 파풍에 가로막혀 주위를 돌아 볼 수 없다.

1층 북쪽 벽의 구조

적이 공격해오는 외측을 이중벽으로 하고 그 사이에는 돌갈돌갈한 돌로 채웠다. 방탄의 효과를 높이는 공리이다.



오트스즈미 (팽이뜨려쌓기) 고보즈미 (복합석형우영쌓기)

텐빙야구라(중요문화재)

정문으로부터 오른쪽을 올라 정상에 도달한 곳에 있다. 북도다리(비상시에는 떨어뜨리는 다리)를 중앙에 두고, 천청과 같이 좌우대칭의 건물. 나가하마성 오테몬을 이축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돌담은 우측이 축성시 당시의 우영 쌓기, 좌측이 에도 후기의 개수에 의한 떨어뜨려 쌓기로 되어 있다.



니노마루 사와구찌다몬야구라 (중요문화재)

사와구치로 향해 왼쪽에 미치는 곳에 흰 벽의 무기창고가 있다. 메이와 4년(1767년)에 변진 불길의 화재로, 현재의 건물은 메이와 6년부터 8년에 걸쳐 재건된 것.



니시노마루 삼중야구라 (중요문화재)

니시노마루의 서쪽에 세운 무기창고로, 한층 더 서쪽에 세워진 출목골파의 사이에 깊은 호리키리(망울 파서 낸 수로)를 마련, 서쪽뒤틀면에서의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비의 요점이었다.



타이코코야구라(중요문화재)

천수각이 있는 혼마루(성의 중심 건물) 정문을 굳히는 창고문으로, 성내 신호의 복을 둔 것으로부터 그 이름이 붙여졌다. 건물의 배면이 개방되어 고관침부의 북도로 되어 있어 창고에는 매우 드문 구조이다.

구서향 저택 나가야몬

가로야시키나가야몬. 문의 양쪽에 돌출창을 마련하는 등, 높은 격식을 나타내는 크고 화려로운 구조로 되어 있다.

마굿간(중요문화재)

얇게 권 널로 이은 들나무의 지붕이 아름다운 마굿간이다. 지방 영주들의 말 21 마리가 매여져 있었다. 성내에 남는 마굿간은 전국에서도 히코네성밖에 없는 드문 건물이다.

히코네성의 매력은 국보 천수각 뿐만이 아니라, 이중의 해자에 둘러싸인 성곽이 거의 에도시대의 모습을 남기는데 있습니다. 천천히 성내 각처의 볼 만한 곳을 차례로 돌아다니면, 역사와 로망을 체험할 수 있겠지요.



성내 각처의 대표적인 볼 만한 곳

중요문화재의 야구라(무기창고), 영주의정원과 곁(표) 저택... 시공을 넘어 지금 빛나.

현궁원(명승)

성의 북동쪽에 있는 구영주 정원에서, 4대 지방 영주 나오오씨가 연보 5년(1677년)부터 7년에 걸쳐 조영 했다. 중국의 궁정에 부속된 정원을「현궁」이라고 한 것으로부터 명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에도시대 초기의 뜰을 현대에 전하는 명원이다. 큰 연못에 솟 내밀듯이 세운 입지각, 봉상대라고 하는 건물의, 광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연못중의 심이나후미(연못, 호수 등 물로 파고 뒤편에 들어간 것)에 가설되는 9개의 다리 등, 변화가 풍부한 유람식 정원으로 되어 있다. 꽃의 향기에 매미울음소리, 단풍, 설경과 사계 계절 마다의 풍경을 영주가 된 기분으로 맞볼 수 있다.

봉상대(다실)

현궁원내의 석가산에 있다. 풍경을 맞볼 수 있는 또다른 하나의 다실 건물이다. 현궁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려면 최적의 장소인 여기서의 연한 차맛은 차별한 풍미가 있다. (9:00~16:00, 휴식 500엔)



이로하소나루

니노마루 사와구찌다몬야구라 앞, 나카보리를 따라서 심어진 소나무. 최초, 47개 심어졌으므로, 이로하 47 문자를 본따서,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락낙원(명승)

히코네번의 교외저택「규저택」의 건물부분을 락낙원이라고 한다. 에도막부 말기의 데노·이이나오스게도 여기서 태어났다.

히코네성박물관

정문다리를 건너 곳에 있어, 원래는 번의 곁(표) 저택(어전), 히코네시의 제50주년을 기념해, 쇼와 62년(1987년)에 지어졌다. 이이가에 전해지는 다수의 미술 공예품의 전시외, 노 무대의 지방 영주의 사생활의 장소인 어짜나 다실이 복원되어 있어, 박물관 그 자체가 전시 건조물로서 즐길 수 있다. 덧붙여 노무대에서는 매년 연능이 개최되어 유현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